

KINU 정책제안서 12-04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정책제안서(12-04)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인권연구센터 기획·디자인·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8(직통)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정책제안서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연구책임자: 손기웅(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공동연구자: 강동완(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선임연구위원)

김미자(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문성묵(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이경림(유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이상호(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자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영재(춘천 DMZ 콘텐츠연구소 소장, 춘천 MBC 기자)

최수영(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연구위원)

최은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4대 중점전략	1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1
나. 철원 평화산업단지	6
다.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12
라. 고성 유엔환경기구	17
2. 3대 중요사업	22
가.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22
나. 유해발굴	23
다.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25

사진 · 그림목차

<사진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위치도 및 구상도	2
<사진 2> 철원 평화산업단지 위치도 및 구상도	8
<사진 3>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위치도 및 구상도	13
<사진 4> 고성 유엔환경기구 위치도 및 구상도	18
<그림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1단계	4
<그림 2>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2단계	5
<그림 3>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3단계	6
<그림 4> 철원 평화산업단지 1단계	10
<그림 5> 철원 평화산업단지 2단계	11
<그림 6> 철원 평화산업단지 3단계	11
<그림 7>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1단계	15
<그림 8>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2단계	16
<그림 9>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3단계	16
<그림 10> 고성 유엔환경기구 1단계	20
<그림 11> 고성 유엔환경기구 2단계	21
<그림 12> 고성 유엔환경기구 3단계	21

- 신정부에게 국가 성장, 국토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관계 개선, 통일준비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함.
- 국가 4대 중점전략과 3개의 중요사업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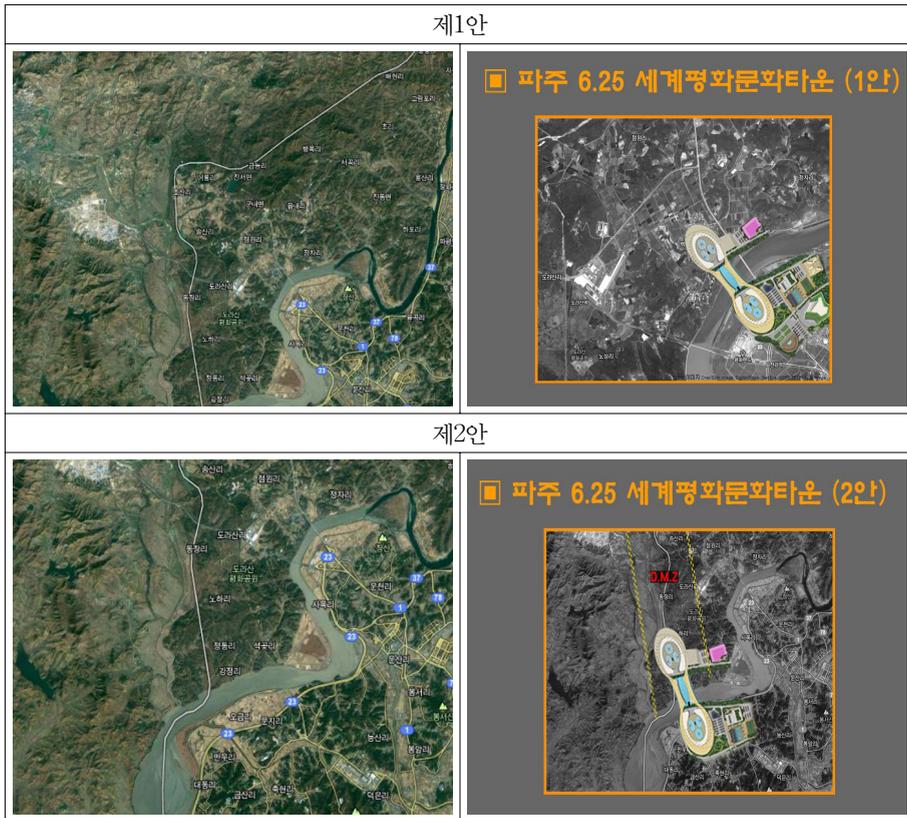
1. 4대 중점전략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1) 주요내용

- 파주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에 관계했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초기에는 참전 16개국과 한국, 유엔에서 출발하여,
 - 종국적으로 우리를 지원했던 67개국에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포함하는,
 -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상호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면서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함.
- 파주 북방 남북한 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로 조성될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중간지점인 DMZ내에 남북한이 모두 승모하고, 동양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함.
 -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지역으로 삼음.
- 파주 접경지역 및 DMZ, 그리고 북한측 접경지역 일대에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사진 1>과 같이 제1안(통일동산을 축으로 그 북방 접경지역 및 DMZ)으로 추진하되,
 - 남북한의 군사적 요구로 실행이 어려울 경우 <사진 1>의 제2안(한강하구 접경지역 및 DMZ)으로 추진함.

<사진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위치도 및 구상도



(2) 추진방안

(가) 1단계

- 파주 북방 남측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참전 16개국과 한국 및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에 착수함.
 - 복합문화공연장(본관)과 참여국의 참전 관련 전시관, 문화전시 및 체험관, 숙박 및 부대시설을 각각 건립함.

-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하여 동 사업의 의미를 전달하고 동참을 요청함.

(나) 2단계

- 남측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6·25전쟁 관련 67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평화문화타운을 확대시킴.
 - 참여국의 참전 관련 전시관, 문화전시 및 체험관, 숙박 및 부대시설,
 - 야외공연장 및 평화·환경 관련 조형물 건립,
 - 환경 생태적 부대시설을 조성함.

- 북한이 동 사업에 호응할 경우 북측 접경지역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참전 관련 전시관, 문화전시 및 체험관, 숙박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되,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이 형성되도록 함.
 - 북한지역에 복합문화공연장(별관)을 건립함.

- 파주지역이 남북한 쌍방 간에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남북측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잇는 DMZ는 인력과 필요 물자가 오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만 개척하는 형태로 이용함.
 - 즉 남북측 접경지역을 DMZ가 잇는 호리병 형태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남북합의에 의해 세계평화문화타운의 대상지역이 제1안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경의선 철도·도로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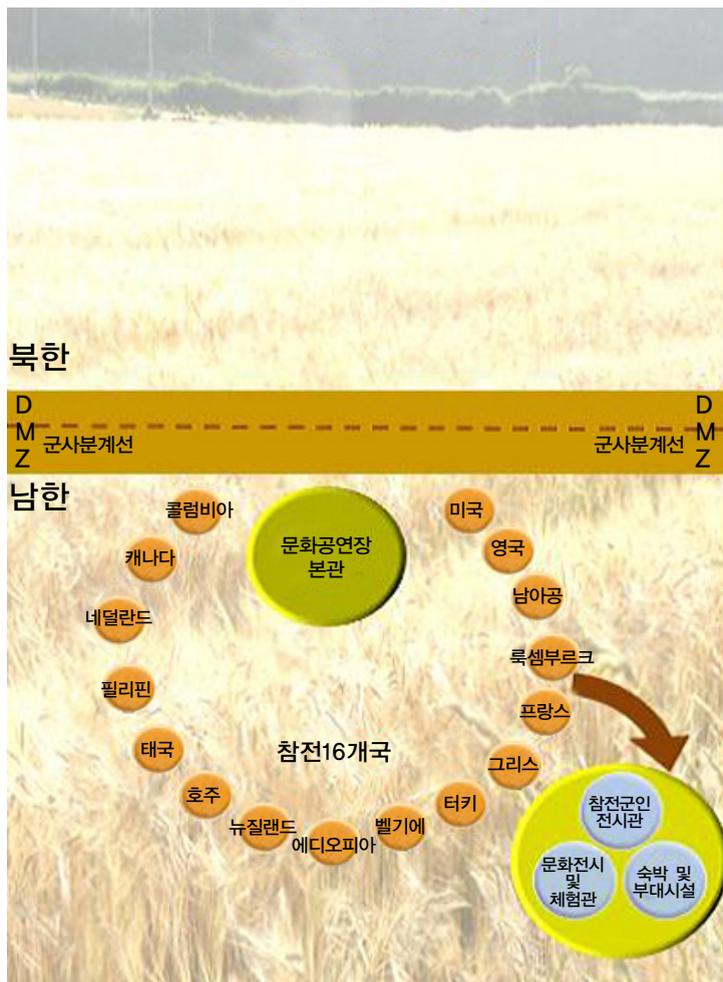
- 남북합의에 의해 세계평화문화타운의 대상지역이 제2안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DMZ 자체 내에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DMZ를 적극 이용함.

- 만약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남측 파주 북방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을 확대·내실화 하되,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경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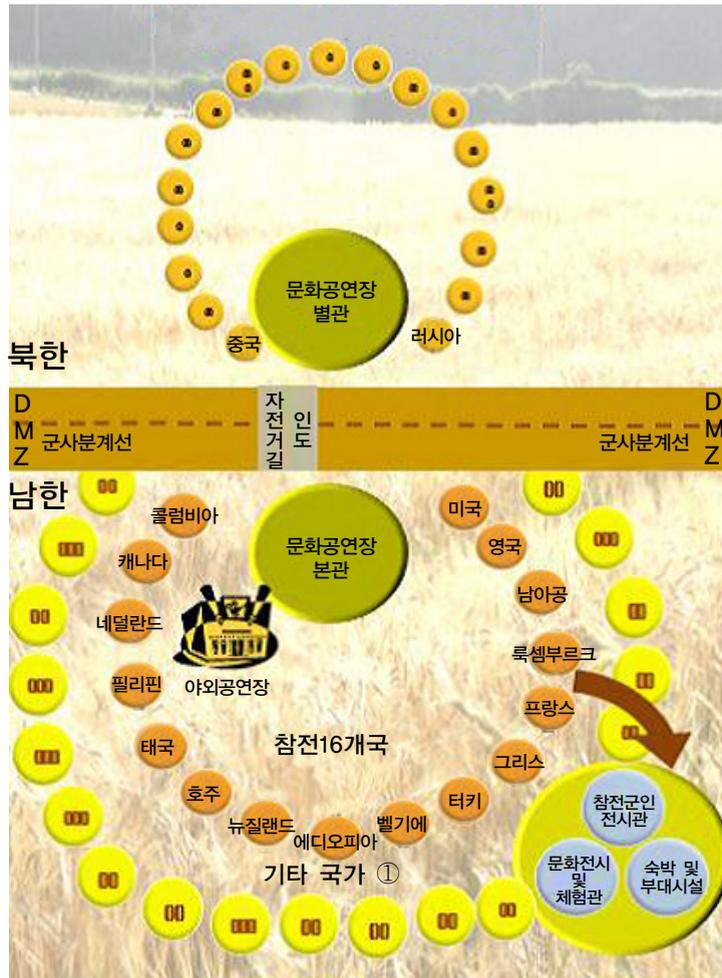
(다) 3단계

-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남북측 접경지역에 위치한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잇는 DMZ내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함.
- 북측 지역에 야외공연장(별관) 및 평화·환경 관련 조형물 건립과 환경 생태적 부대시설을 조성함.
- 남북측 문화타운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노레일 혹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교통편을 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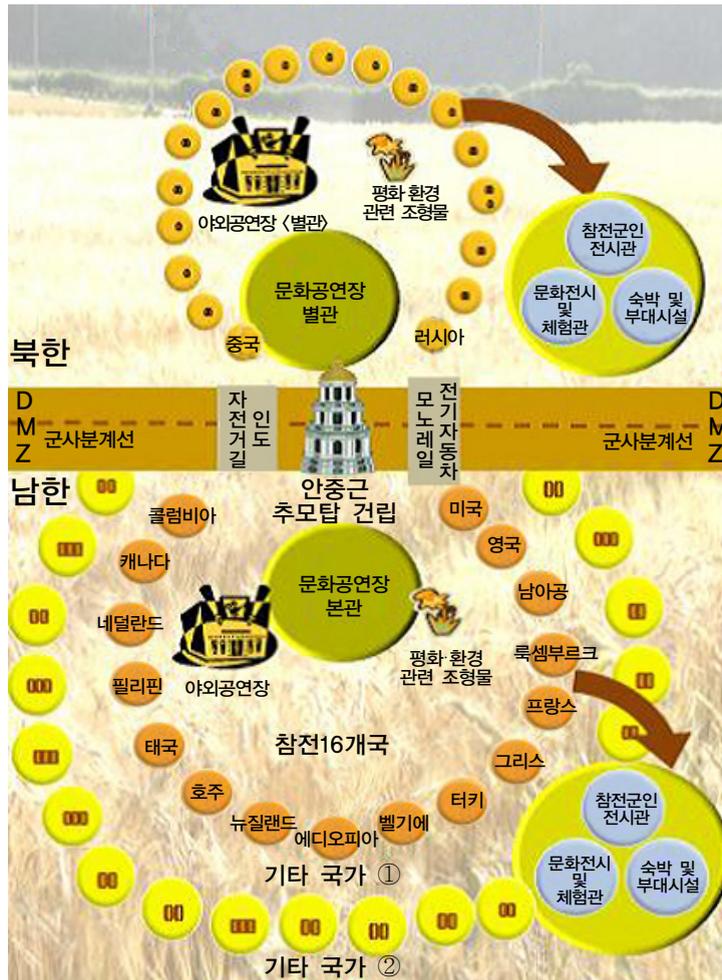
<그림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1단계



<그림 2>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2단계



<그림 3>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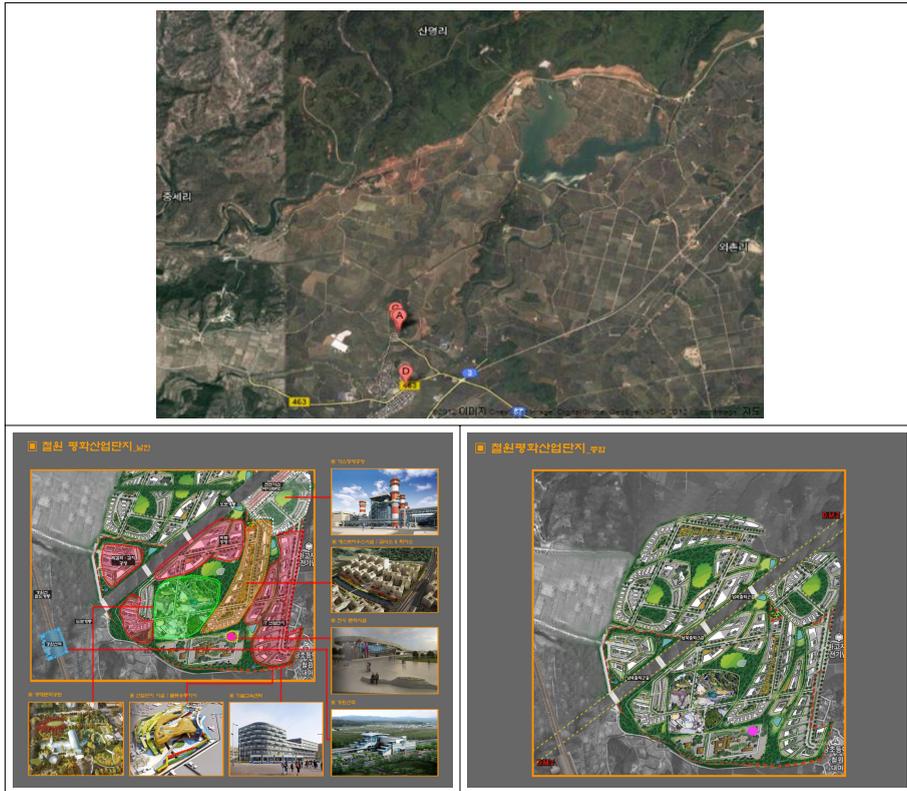
나. 철원 평화산업단지

(1) 주요내용

- 남북 철원 DMZ 및 접경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의, 남측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함.
 - 북측 땅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 남북한 인력이 DMZ를 오가며 교류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경협을 추진함.

-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복원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함.
- 남북한 철원지역을 포함하되, 그 가운데에 놓인 DMZ는 인적·물적 자원의 통과가 가능한 정도로만 활용하는 호리병 형태의 철원산업단지를 조성함.
 - <사진 2> 참조.
-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중심은 백마고지 전망대 일대의 남측 철원의 평야지대임.
 - 북측 철원지역에 위치할 평화산업단지는 남측 철원산업단지를 보완·지원하는 형태를 지니도록 함.
 - 북측 철원산업단지에는 남측으로 통근 형식으로 출·퇴근할 북측 근로자의 숙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함.
- 남측 철원지역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는 북측 철원지역에서 철도·도로를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남북 철원지역간 DMZ를 통과하는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함.
 -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 한 번에 대규모로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 이를 명분으로 철도의 개통을 요구하고 향후 경원선의 복원과 연계함.
-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호응에 따라 경원선과 금강산선 연결, 천연가스관 연결로 사업을 확대함.
- 평화산업단지에 유치될 산업은 철원의 지역적 특성, 국가적 차원의 요구, 산업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농식품 가공산업, 청정 IT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 인근 태봉국 문화유적과 연계한 생태문화관광을 실시함.
- 철원지역이 두루미 등 철새의 도래지임을 고려하여 남북 공동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함.

<사진 2> 철원 평화산업단지 위치도 및 구상도



(2) 추진방안

(가) 1단계

- 철원 평화산업단지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되,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측 철원지역에 대북지원용 시설을 설치함.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비료지원이 지속될 것인 바, 대북지원용 비료생산 시설을 남측 철원지역에 건설함.
 - 이 시설물이 지속적인 대북지원용임을 설명하고 이를 북측에 인도할 통로의 개척, 즉 DMZ를 통과할 도로의 건설을 북한에 요청함.
 - DMZ를 거쳐 대북 비료지원이 시행될 경우, 북측 철원평야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을 추진함.

- 대북지원용 비료생산시설은 최대한 환경오염이 적은 바이오 비료를 중심으로 하되, 화학비료의 생산에서도 환경적 고려를 우선시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함.
- 비료생산에 따른 환경적 우려가 크다면 남측 철원지역에 대북지원용 농기계 생산시설을 건설함.
 - 역시 농기계의 대북지원을 명분으로 북한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는 DMZ 내 통로의 개설을 요구함.
 - 농기계의 지원과 아울러 북측 철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남측 철원산업단지를 형성해 감.
- 만약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이 단계에서 가시화 된다면 북·러 국경에서의 가스관 연결사업의 시공과 동시에 남북 철원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의 시공을 남북 철원 DMZ에서도 착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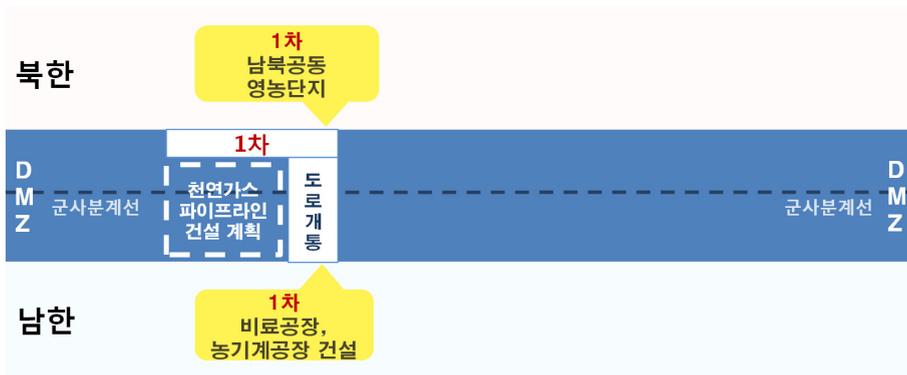
(나) 2단계

- 남측 철원산업단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외에 청정IT산업을 유치함.
- 북측 철원지역에도 청정IT산업의 일부 기업, 북한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조성함.
- 북측 근로자의 남쪽으로의 출·퇴근을 위해 기 개척된 DMZ 통로를 확대하여 철도·도로를 부설하고, 통근 기차·버스를 운영함.
-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북한 내에서 본격화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재와 시설물을 남측 철원지역에 배치함.
- 동시에 남북 철원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를 경원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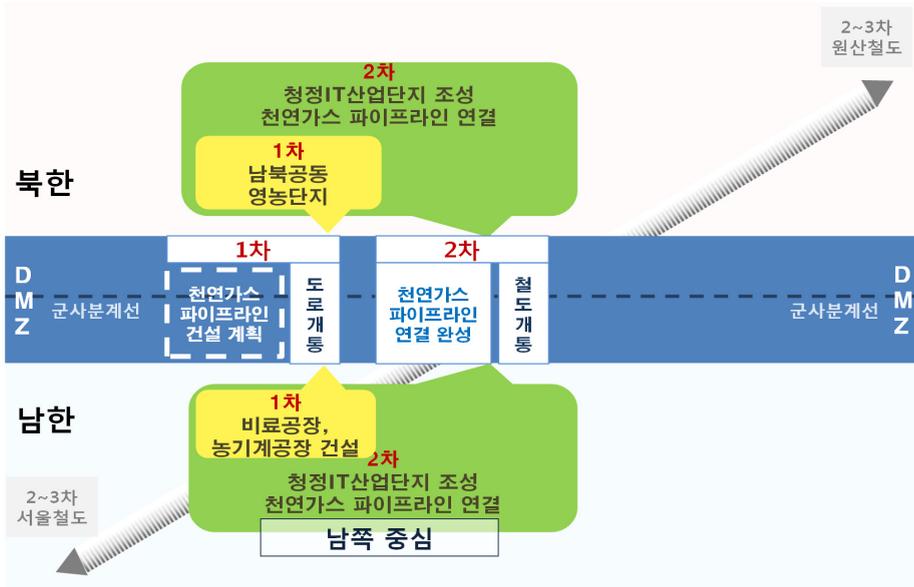
(다) 3단계

- 남북측 철원지역에서 평화산업단지의 운영을 본격화함.
- 경원선 연결과 아울러 금강산선의 복원도 추진함.
- 천연가스관의 연결도 적극 지원하여 DMZ에서 원산을 거쳐 북·러 국경지역에 이르는 전 공사를 지원함.
- 남북 철원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생태문화관광을 실시함.

<그림 4> 철원 평화산업단지 1단계



<그림 5> 철원 평화산업단지 2단계



<그림 6> 철원 평화산업단지 3단계



다.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1) 주요내용

- 현재 추진 중인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계기로 평화의 댐을 세계 최초의 댐을 활용한 평화댐문화공연장으로 전환하고 그 일대의 평화조형물과 더불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함.
 - 평화의 댐 인근에 DMZ 및 접경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는 한반도생물자원관을 건립하여 생태적 의미를 부각시킴.

- 평화의 댐과 임남댐(금강산댐) 사이를 평화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평화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과 동시에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북한강 상류지역의 평화생태호수공원, 즉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북-남간 세로로 가르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이제까지 DMZ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동에서 서로, 즉 가로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북한강 상류지역을 시발로 하여 상호 받아들이기 쉬우면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북-남간 세로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하나씩 추진하고,
 - 남북관계가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DMZ와 접경지역 전역에 걸친 가로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평화생태호수공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보전에 협력하는 동시에 상호 동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를 추진함.

<사진 3>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위치도 및 구상도



(2) 추진방안

(가) 1단계

-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의 댐과 금강산댐 사이에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의 의지를 공표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함.
- 북한의 호응과는 무관하게 평화의 댐에 평화댐문화공연장을 건립하고 이 지역을 평화의 상징지역화 함.
 - 홍수기를 피하여 연간 2~3개월에 걸쳐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 그 외의 기간은 평화댐문화공연장을 관광지로 활용함.
- 평화의 댐 주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문화관 우측에 한반도생물자원관을 건립함.
- 북한강 상류지역 오작교 하류의 우리측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을 준비하기 위한 생태보전 사업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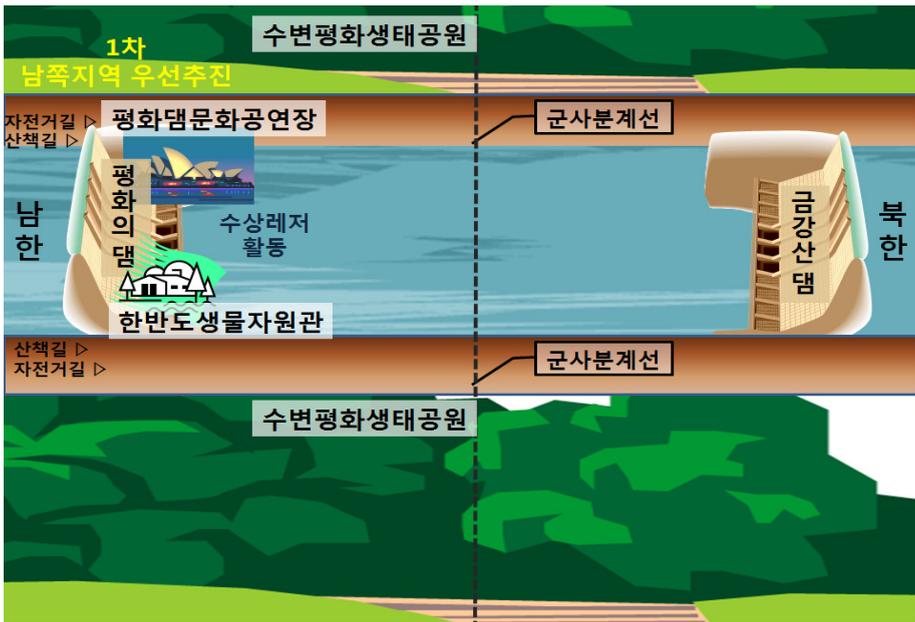
(나) 2단계

- 북한이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에 호응할 경우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함.
- 평화생태호수공원 일대를 탐방할 수 있는 접근로를 개척하고, 가능하다면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예를 들어 모노레일 혹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함.
-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남북이 협력하여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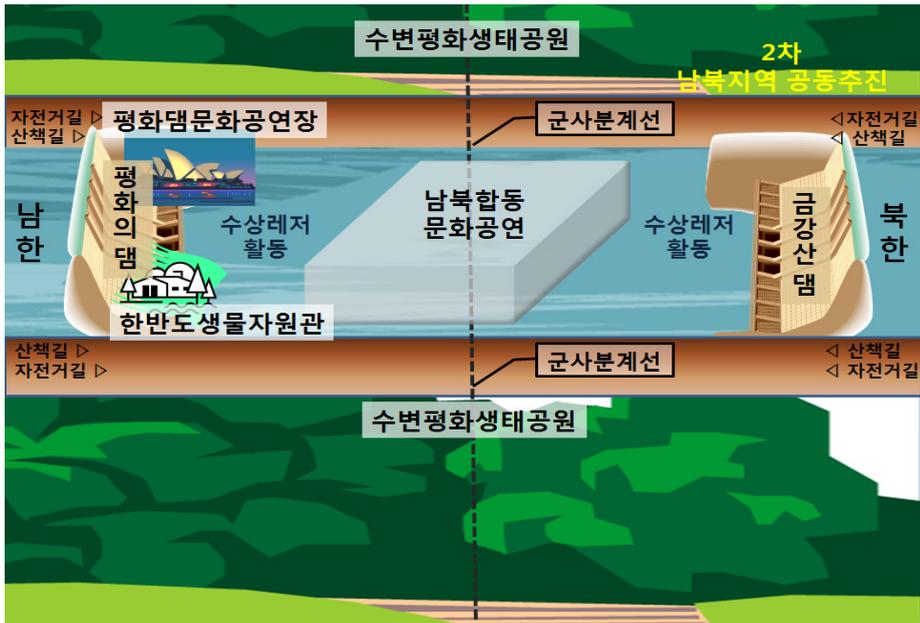
(다) 3단계

-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생태호수공원 일대를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함.
- 평화담문화공연장에 남북이 합의하는 내용의 문화공연을 공동으로 진행함.
- 한반도생물자원관에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남북이 협력함.

<그림 7>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1단계



<그림 8>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2단계



<그림 9>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3단계



라. 고성 유엔환경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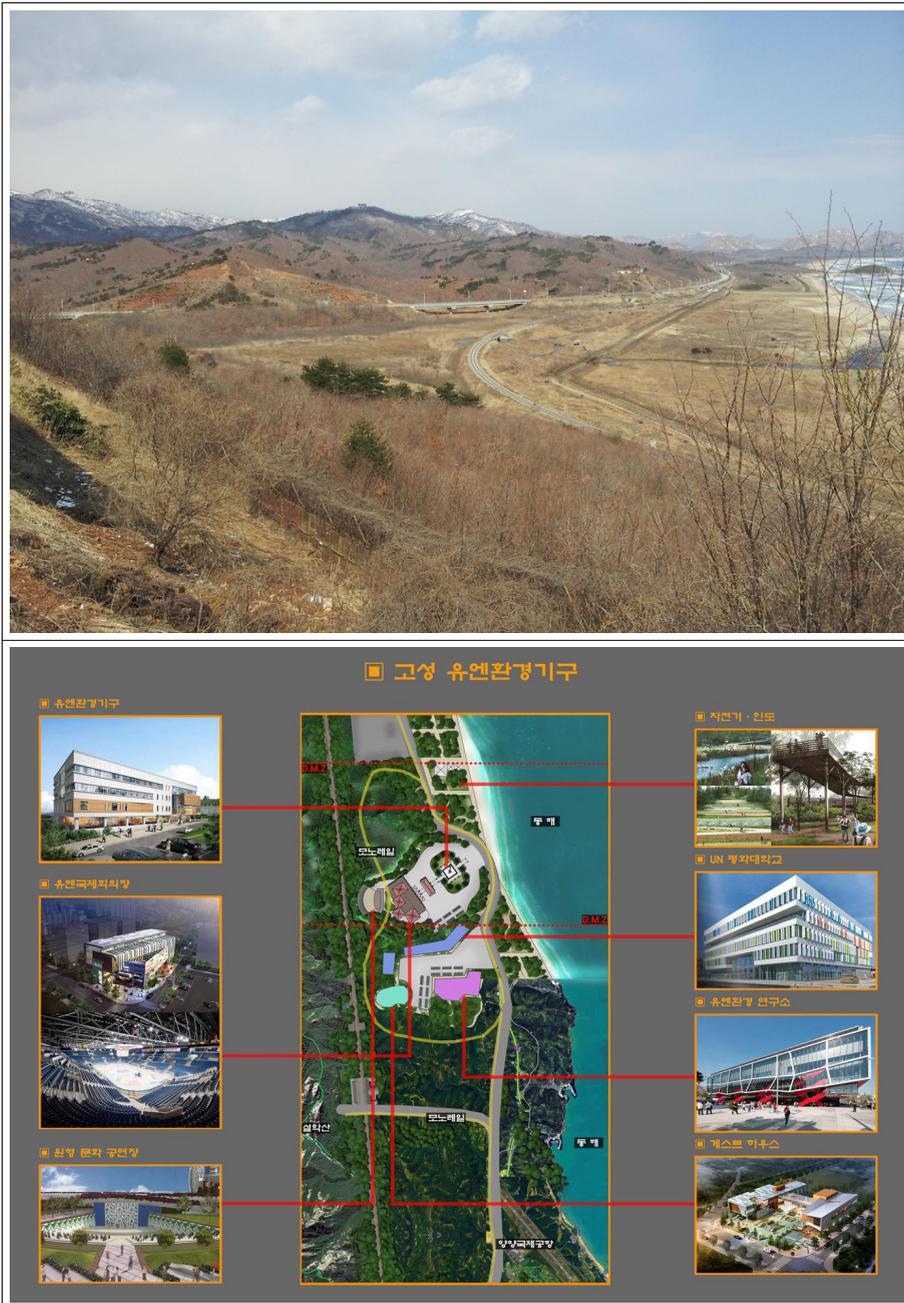
(1) 주요내용

- 남한의 설악산국립공원과 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이 만나고, 남북 고성의 중간에 위치하며 현재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
 -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황사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과 수질·해양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계기로 문제해결과 공동협력의 동력으로 삼음.

- 유엔환경기구를 시발로 하여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 등을 유치하여 이 지역을 유엔환경평화타운으로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나아가 금강산지역에 까지 환경친화적인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의 연결을 계기로 이 지역을 환동해권 발전의 핵심으로 삼음.

<사진 4> 고성 유엔환경기구 위치도 및 구상도



(2) 추진방안

(가) 1단계

- 남한에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전담할 대통령직속기관 형식의 '유엔기구 유치위원회'(가칭)를 구성·출범시킴.
- 국가적 전방위 외교를 통해 유치될 유엔환경기구를 확정함.
- 북한에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호응을 촉구함.
- 남측 고성 DMZ 접경지역에 생태평화공원 부지를 조성함.
-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완공을 서두름.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남측 고성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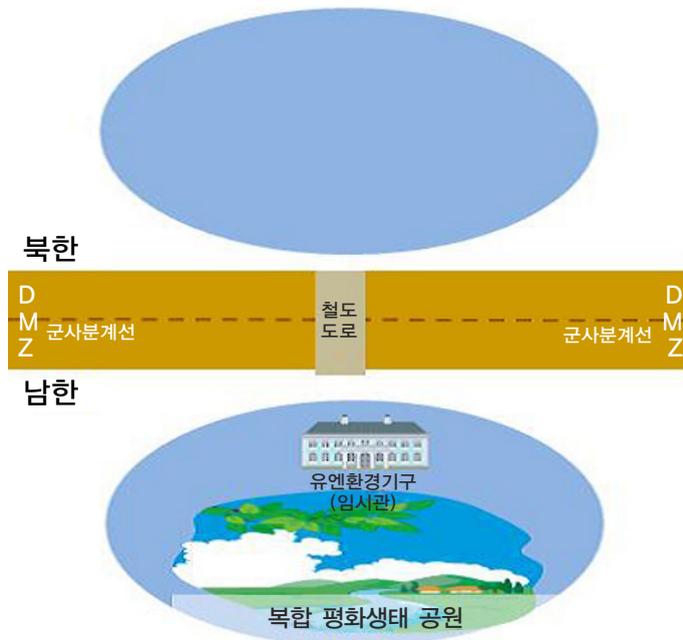
(나) 2단계

-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남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기구 임시 본관, 유엔환경연구소 본관, 유엔평화연구소 본관, 유엔환경대학교 본관, 유엔평화대학교 본관을 조성함.
-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 고성군 가운데 지점인 DMZ내에 유엔환경기구 본관을 조성함.
 - 남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연구소 본관, 유엔평화연구소 본관, 유엔환경대학교 본관, 유엔평화대학교 본관을 조성함.
 - 북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기구 유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남북측 고성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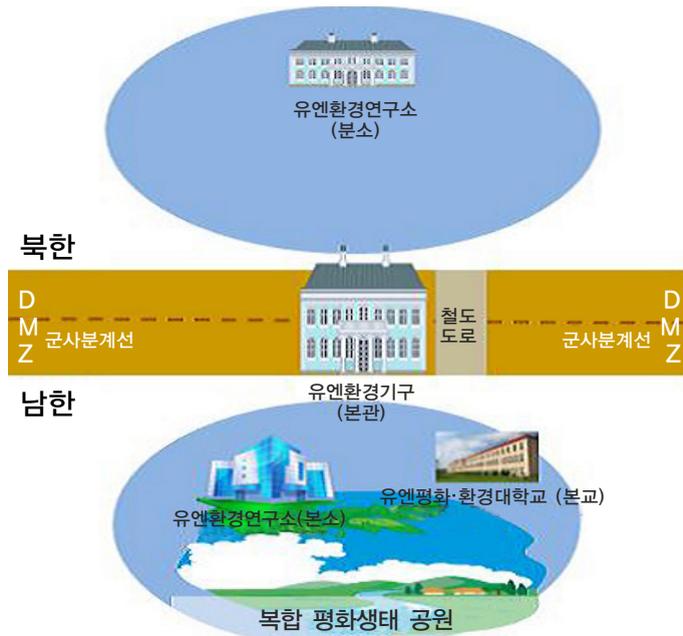
(다) 3단계

-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DMZ내에 유엔환경기구와 관련 부대시설을 완공함.
 - 북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연구소 분소, 유엔평화연구소 분소, 유엔환경대학교 분교, 유엔평화대학교 분교를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남북측 고성, 금강산국립공원에 이르기 까지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 예를 들어 전기버스나 모노레일로 연결함.
-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을 완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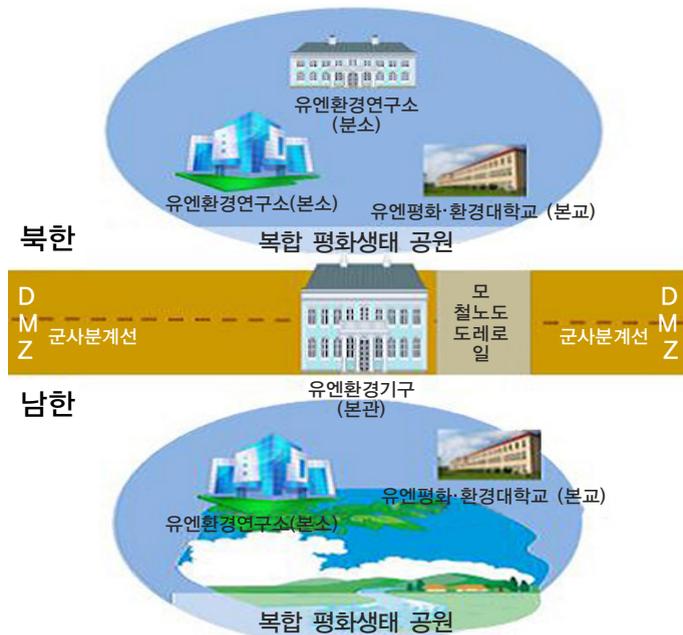
<그림 10> 고성 유엔환경기구 1단계



<그림 11> 고성 유엔환경지구 2단계



<그림 12> 고성 유엔환경지구 3단계



2. 3대 중요사업

가.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1) 주요내용

- 2013년 7월 27일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된 60주년을 맞아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우리측 주요 군사전망대에서 DMZ 전 지역을 방송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전 세계에 생중계 함.
- 전 세계 시민들에게 DMZ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소개함.

(2) 추진방안

(가) 1단계

-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행사의 의미를 국내외적 차원에서 홍보함.
- DMZ를 촬영할 DMZ 남방한계선 주요 군사전망대를 선정하고, 방송카메라를 설치함.
 -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하고 이를 전 세계에 방송으로 소개하여 관심을 제고함.
 -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함.

(나) 2단계

- DMZ 인근 접경지역에서 국내외 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DMZ 관련 다양한 문화·예술·학술행사를 거행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킴.
 - 평화·생태를 주제로 하는 음악공연, 연극공연, 학술토론회를 실시함.
 - 청소년들이 DMZ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다) 3단계

- 2013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DMZ 전역의 현장을 전 세계에 생방송함.
- 6·25전쟁, 초토화되었던 당시의 DMZ, 이후 60년에 걸쳐 DMZ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난 생태계의 현장과 생물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함.
- 국내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 한반도문제 및 생태계 전문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세계적 지도자나 석학과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함.
- 신정부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함.

나. 유해발굴

(1) 주요내용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DMZ내 특정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6·25전쟁으로 인해 숨진 모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함.
 -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및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의 참여도 추진함.
- 우리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

(2) 추진방안

(가) 1단계

- 남북 유해 공동발굴 관련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함.
 - 유해 공동발굴 관련 종합대책의 발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함.
 - 실행기구 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 현재 대령급이 지휘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장성급이 지휘하는 조직으로 격상시켜 본격 발굴에 대비함.

- 남북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타결해야 할 실천합의서 초안을 준비하고 유해발굴소재 및 지역 등 제반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신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재개될 경우, 6·25전쟁 공동유해발굴 관련 사안을 북측에 적극 제기함.

- 국내적인 공감대를 형성함.
 -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NGO 등을 통해 서명운동 전개 등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함.

- 『정전협정』 협의 창구, 또는 미·북 협의 채널을 통해 유해 공동발굴을 촉구함.
 - 국제적십자사 및 국제 인권단체 등을 통해 유해 공동발굴을 촉구함.
 - 6자회담 등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측면 지원함.

(나) 2단계

- 남북 군사당국간 접촉을 통해 원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 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동 사안 협의를 위한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함.
 - 상기 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또는 제1차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동 사안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협의함.

- 남북간 합의서 타결 시 국회 비준 및 관련법을 제정함.

- DMZ내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를 개시함.

- DMZ내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를 시범발굴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동조사 및 시범발굴을 실시함.

(다) 3단계

- 유해발굴지역의 확대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함.
 - 유해발굴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다.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1) 주요내용

- DMZ내에 위치한 남북의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에 유엔평화병원을 건립하여 남북한 주민은 물론, 남북한 군인들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
- 병원은 양방과 한방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구성하며, 북한 의료 인력의 교육 및 상호 공동연구의 추진 등으로 확대함.

(2) 추진방안

(가) 1단계

- 평화병원재단 한국본부의 체계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DMZ내 유엔평화병원건립안』(가칭)을 정부차원의 유엔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유엔의 결의(Resolution)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정전협정』 서명자인 유엔군사령부, 북한, 중국에 본 사업의 의미를 소개하고 호응을 요청함.
- 국제적십자사, 남북적십자사를 통해 본 사업의 의미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함.

(나) 2단계

- 유엔평화병원 건립에 대한 『정전협정』 서명자들의 동의를 취득함.
- 유엔평화병원 건립에 관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채택함.
- 『유엔평화병원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되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
-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외적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함.

(다) 3단계

- 유엔평화병원 기공식을 거행하고 신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여 진료를 시작하도록 함.
 - 국제적십자사,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각 분야 의료진 확보,
 - 병원건물 시공 및 준공,
 - 각종의료장비 설치,
 - 유엔평화병원 개원식을 추진함.